

[나의 초보 양육기 8]

한번 동반자 끝까지 돌본다

최규환 형제 / 2002 / 페이지 수: 2

일대일 동반자반, 양육자 반을 1년에 걸쳐 훈련받고, 2001년 8월경에 양육자가 되어 신혼 부부를 첫 동반자로 맞이했습니다. 신혼부부를 동반자로 맞이한 것은 젊은 사람들간의 공감대 형성과 신앙과 삶을 나누도록 배려해 주신 '한강공동체 일대일 연결사역자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양육자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막연한 부담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성령님께 의탁하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연결된 지 한 달만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성구찾아 갈팡질팡

하지만, 모태신앙임에도 한번도 가르침과 나눔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던 저였기에 매 과정의 양육은 막연한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의 방식이기에 예상하지 못한 동반자의 질문으로 답변하지 못하게 되면 난감해 할 것 이라는 막연한 짐작은 불안과 초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이 교안을 작성하여 매 수업 시간에 임한 자세였습니다.

결국 동반자와 매번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장에 교안을 작성해 머리속에 있는 생각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눔의 시간을 준비하여 그나마 수월한 양육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양육하면서 제일 난감했던 것은 일대일 성경공부 교재 외의 알고만 있던 성구를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지 않아서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양육자인 저에게 너무도 당황스럽고 무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않고 성구검색 사이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검색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성구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사이트는 대한성서공회 성구검색 사이트로 알고 있는 단어와 구절을 이용하면 찾고자 하는 성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사이트였습니다.

그러나 만남 전에 미리 성구를 찾아두었지만 막상 일대일을 하다가 중간에 나누고 싶은 성구가 생각이 나도 찾아놓은 성구를 찾지 못해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대부분의 동반자 분들은 넓은 아량과 이해로 용기와 위로를 주어 다행히 만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로 일대일 양육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하여 양육자와 동반자의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타인에게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특히 게시판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 그리고 진도를 공지했고 예습을 부탁하여 다음 번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다음 번 만남이 불가피 하게 미뤄질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지하여 상대방에게 알렸고, 근황을 알려서 지속적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공지와 근황을 알린 것은 전화통화보다 자신의 상황을 글로 게시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게시판 활용함에 원칙을 두었는데, 그것은 상대의 게시물을 읽었다는 확인차 답글을 게시하여 상대에게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동반자 분들의 수료 후에도 활용하여 서로의 근황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만남이 없을지라도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반자 분들의 기도제목이 자녀의 임신으로 응답되어 기쁨이 되었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산 체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

[나의 초보 양육기 6]

<http://file.cgntv.net>

“동반자와 성격이 안맞아요? 문제없어요”

정은영 자매 / 2002 / 페이지 수: 2

초보 양육기를 부탁받았을 때는 맘이 무거웠다. 왜냐하면 처음 양육했던 동반자와 안타깝게 중도하차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은 점과 내 자신의 확신없는 신앙과 모난 성격탓이었다.

불확신 때문에 중도하차

모태신앙으로서 성장한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죄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대일 동반자 과정하면서 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고 나도 덩달아 고민에 빠졌다. 막상 양육을 할 때 왠지 자신감있게 선포하기가 이상했다. 그러다 첫 번째 양육은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이 일이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나의 믿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고 예배에 좀 더 집중하였다. 그러다 어느 목사님의 주제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언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체험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년전부터 다시 양육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동반자였던 자매와는 성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 뜨뜨미지근한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크게 변화시켜서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한다.

깊은 교제와 귀한 추억

나도 뜨뜨미지근한 믿음, 날나리 크리스천이었다가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들어와 활동하면서 많이 변했다. 우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편해졌다는 말을 듣는다. 아직은 좀더 많이 변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지만 말이다.

때문에 동반하는 자매와는 잘 맞았다. 좀 더 성숙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자고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자매라 그런지 몰라도 참 잘 먹으러 다녔다. 종류별로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살아가자는 확신과 격려를 서로 나누었다. 1년을 넘게 교제를 나누었다. 성경공부는 못해도 잠시라도 꼬옥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다. 주님과 교제를 위한 추억과 경험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된다.

지금 세 번째의 양육은 참 귀한 자매들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과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는 자매들이다. 이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 어떻게 보면 연단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서로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평생 기도 동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일대일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있다. 영성의 깊이가 동반자가 더 높다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된다.

솔직히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어서 쉬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서 양육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위로받는다. 아직은 어리고, 초보라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반자에게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발 한발 인도하시는 것을 매순간 느낄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